

너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권리를 타고났다.

밥다다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만남을 보고 기쁘다. 동시대 이후로 특별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이 강 또는 저 강의 강변에서, 이 신인 또는 저 신인의 상이 있는 데서 일어난다. 아버지를 기리며 축하되는 것은 오직 쉬브 라트리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소개받지 못한다. 동시대의 만남은 신봉자들과 신인 상들과의 만남이지만, 이것은 대양과 큰 강의 강변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만남이다.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다른 어떤 때에도 그러한 만남은 일어날 수 없다. 마두반에서 너희는 2중의 만남을 직접 목격한다. 하나는 밥과 다다, 즉 대양과 큰 강의 만남이고, 다른 하나는 밥다다와 자녀들의 만남이다. 너희는 이미 이 만남을 축하해왔다. 이 만남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는 계속 봉사한다. 그러므로 성장이 있을 것이고 만남은 축하되어야 한다.

밥과 다다는 둘이서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브라마는 브라민들의 수가 희생의 불이 끝날 때까지 계속 늘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확장과 더불어 물질세계에서 육신의 형태로 만남을 축하하는 방법은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 했다. 남에게 빌린 것과 너희에게 속하는 것을 사용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 너희의 소유물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떤 식으로든 쓸 수 있는 반면, 이 마지막 생의 이 육신은 임대하여 취한 것이다. 너희는 이제껏 빌려서 써온 뭔가 오래된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 아버지 쉬바는 미소를 띠고서, “성장에 따라 세 가지 관계로의 만남의 세 가지 방법은 반드시 변화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겠느냐?

아버지의 모습에서 너희가 누리는 특별한 권리는 만남이라는 특별하고 달콤한 톨리다. 선생에게서 너희는 멀리를 받는다. 사트구루는 얼핏 쳐다보는 일별로, 다시 말해 아비약트 만남에 대한 영적 사랑으로 가득한 드리시티로, 너희들을 저 너머로 데려간다. 앞으로 오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환영과 만남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이가 축복을 받으려는 생각을 한다. 밥다다는 “너희는 축복의 공여자의 자녀들이므로 모든 축복들은 너희가 타고난 권리다”라고 한다. 지금뿐 아니라 너희가 태어난 바로 그 순간, 축복의 공여자가 너희를 축복해주었다. 행운의 공여자는 불멸하는 행운의 선을 너희들의 별자리 운세에 정해주었다. 세속의 삶에서도 역시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식 전에 별자리 운세를 표로 작성한다. 행운의 공여자, 축복의 공여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브라마는 너희가 태어난 순간 모든 축복과 불멸하는 행운의 선을 그어주었다. 너희가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그들은 너희의 별자리 운세 표를 만들었다. 너희는 영원히 축복 받는다. 기억의 화신인 자녀들은 언제나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성취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기억의 화신인 자녀들이다. 아직도 너희가 뭔가를 더 성취해야 하도록 부족한 것이 있느냐? 밥과 다다는 그런 마음의 대화를 가졌다. 이 강당을 왜 지었느냐? 브라민 3, 4천 명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만남이 계속 더 확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하니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이 성장해라! 멀리를 들려줄 때 바바는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바바의 눈길은 너희들에게 쏠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될 것이다.

이제 아부에서부터 줄이 서야 한다. 그 정도로 많이 성장해야 한다. 아니면 너희는 겨우 몇 명뿐인 너희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봉사자들은 한결같이 그들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남들에게 봉사하며 행복해한다. 어머니들은 봉사에 대한 경험이 있다. 너희들은 심지어

잠까지 버리고 아이를 품에 안아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도와서 이루어낸 성장을 통해 너희는 앞으로 올 자들이 각자의 몫을 받을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느냐? 앗차.

이번에 밥다다는 바라트의 자녀들의 모든 불평을 끝냈다. 임대해서 취한 몸이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안은 바바가 계속해서 모든 이의 불만에 대해 대답해줄 것이다. 앗차.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에게, 태어난 순간 축복으로 가득한, 불멸하며 고귀하고 복 많은 영혼들에게, 버림을 통해 행운을 얻는 그렇게 위대한 버린 자들에게, 그러한 수백만 배로 복 많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모든 곳에서 온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아비약트 밥다다가 어머니들에게 들려주신 더 없이 귀한 말씀들 (83년 4월 7일)

밥다다는 특별한 도구인 2중의 봉사자들에게, 사랑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몇 마디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선물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항상 간직해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항상 미묘하다는 의식을 가져라. 봉사자라는 의식을 늘 지녀라. 위탁관리인이라는 의식을 언제나 가져라. 모든 이에게 영적인 사랑과 자애로운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고귀하게 만들려는 좋은 염원을 품어라. 너희가 모든 이에게 봉사하려는 시선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세속 가족들의 도구 영혼들과도 역시 계속 서로 교류해라. “내 아이와 내 남편은 유익 받아야 합당하다” 라는 의미로 스스로를 한정짓지 마라. 모든 이에게 유익이 있게 해라.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는 너희가 그들에게 영혼의식을 주고 자애로운 드리시티를 줄 수 없다. 너희들 중 대다수가 밥다다 앞에서 원하는 소망은 너희의 아이가 변해야 한다, 또는 너희 남편이 협조해야 한다, 아니면 가족 중 누가 너희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어째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직 그 영혼들만 너희에게 속한다고 여기느냐? 바로 이 한계의 벽으로 인해 너희들의 좋고 자애로운 염원이 그 영혼들에게 가 닿지 못한다. 너희의 생각은 좋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방법이 정확하지 않으니 어떻게 결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유로 이 불평이 계속된다. 한결같이 영혼의식의 시선을 유지하고 형제 관계라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어떤 영혼을 위해 좋은 염원을 가지든 반드시 그 결실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노력하는 데 지치지 마라. 많이 노력했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함으로써 낙담하지 마라. 지각에 믿음을 가지고 관계에서 “내 것”이라는 의식을 벗어나 계속 움직여라. 일부 어떤 영혼들은 신봉에서의 카르마의 잔고를 정리하고 신에게서 제 몫의 유산을 차지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한즉 인내심을 가지고, 초연한 관찰자의 자리에 안정해 머물며 낙담하지 마라. 계속해서 영혼들에게 평화와 힘으로 협조해라. 2중의 봉사자이며 그러한 단계에 안정해 머물면서 이 세상의 가족들에게 영적인 느낌을 가지는 위탁관리인인 자녀들은 매우 위대하다. 너희들 스스로의 중요성을 알아라! 그러니 너희는 어떤 두 가지 칭호를 기억하려느냐?

애착의 정복자이며 너희의 무한한 관계들에 대한 기억의 화신이다.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에게 속하고 그는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는 동반자다” 라는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와 모든 관계를 다 성취해야 한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 테지? 단지 이 특별한 두 가지를 기억하기만 해라. 삭티와 판다바인 너희들 모두 밥다다가 특별히 너희들 각자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너희들 모두 바바가 너희에게 직접 얘기한 내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집회에 있을 동안 밥다다는 특히 가정을 가진 자들 모두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다. 바바는 대중 앞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해하느냐? 그는 각 자녀에게 옆의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이 오지 않느냐? 사랑과 선물을 받으려고 말이다! 너희는 이를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지 않느냐? 사랑의 대양은 사랑을 가진 영혼 각자에게 결코 끝나지 않을 사랑의 광산을 하나씩 주고 있다. 더 해야 할 다른 무엇이 남았느냐? 만나고 말하고 받는 것, 이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 전부 아니냐? 앗차.

한정된 모든 관계로부터 물러나 초연한 자들에게, 변함없이 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에게, 애착의 정복자들에게, 세계 유익에 대한 의식의 화신인 자들에게, 한결같이 지각에 믿음을 가진 승리하는 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머물며 어떠한 격동도 초월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고결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1) 너희들은 변함없이 너희 자신을 아버지의 동반자로 경험하느냐? 항상 전능한 권위자 아버지를 동반자로 가진 사람은 모든 성취를 다 가진다. 어떤 유형의 마야도 그의 앞에 올 수 없다. 그는 이미 마야에게 작별을 고했다. 너희는 마야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을 테지? 마야에게 작별을 고하는 자들은 매 발걸음마다 아버지에게 축하 받는다. 아직 마야에게 작별을 고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괴로워하며 거둑거둑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내가 어찌 할까?” 라고 울부짖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마야와 이미 작별한 자들이 됨으로써 축하 받아라. 너희들은 행복이라는 행운을 지닌 그러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모든 걸음걸음을 아버지와 함께 한다. 그러니 축하도 역시 너희와 함께 한다. 신이 친히 영혼인 너희들을 축하하고 있다는 행복을 늘 유지해라. 너희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던 것을 성취했다. 너희는 아버지를 얻었으니 모든 것을 다 얻었다. 너희는 모든 성취의 화신들이 되었다. 끊임없이 이 행운을 기억해라.

2) 너희들 모두 항상 아버지 한 분에 대한 사랑 속에 잠겨 있느냐? 너희가 대양 속에 잠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잠겨있다. 사랑 속에 한결같이 잠겨 있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일도 의식하지 않는다. 사랑에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쉽게 초월할 수 있다. 그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 신봉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항상 신봉에 넋을 잃은 상태로 지낸다”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언제나 사랑 속에 잠겨있다”라고 한다. 너희는 세상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나의 가정, 내 아이들, 내 소유물” 등 “나의 것”이라는 의식은 전부 다 끝난다. 한 분 뿐 아버지가 “나의 것”이면 그때는 다른 모든 “내 것”에 대한 의식이 끝난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나의 것”이라는 의식도 너희를 더럽힌다. 너희가 “아버지는 나의 것입니다”라 말할 때 다른 모든 “나의 것”들은 끝난다.

3) 바바는 모든 자녀들에 대해 깊은 사랑을 갖고 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교육을 받았든 못 받았든 너희는 전체 모든 이들 중에서 최고로 고귀하다. 너희들 각자는 옆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 받는다. 아버지에게는 너희 모두가 특별한 영혼들이다. 너희 모두에게는 어떤 특기가 있느냐? 아버지를 아는 특기다. 위대한 리시나 무니들도 몰랐던 분을 지금 너희들은 알고 그를 얻었다. 저 가련한 사람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저희는 몰라요!” 라며 떠났다. 이제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밥다다는 그런 특별한 영혼들에게 날마다 사랑과 기억을 보내준다. 그는 매일 너희와의 만남을 축하한다. 암릿 벨라 때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시간대다. 신봉자들의 줄은 나중에 생긴다. 처음에는 너희 자녀들의 줄이 선다. 특별한 영혼들을 만나는 시간이니 그것도 역시 틀림없이 특별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너희들 자신을 그렇게 특별한 영혼이라 여기고 계속 행복해하며 날아다녀라.

4) 브라민 자녀들은 각자의 병에 대한 약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행복이라는 자양분은 1초에 들는 약이다. 저 사람들이 즉시 변화를 가져오는 약효가 센 주사를 놔주듯이, 브라민들도 역시 행복이라는 알약을 처방하고 행복이라는 주사를 스스로 주입할 수 있다. 너희들 모두 이것을

비축해두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지식을 기반으로 너희의 몸이 기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식의 빛과 힘은 큰 도움을 준다. 질병에 걸리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수단이 된다. 밥다다는 이틀 간 너희를 서틀 리전으로 초대해서 아슈타 (여덟 개의 특별한 보석)의 신성한 활동을 게임 삼아 놀게 한다. 그러면 의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초창기에는 트랜스 메신저들이 하루나 이틀 간 서틀 리전에서 머물곤 했었다.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저 서틀 리전에 와라. 밥다다는 너희를 데리고 런던이나 미국에 있는 신봉자들에게 순회여행을 갈 것이다. 그는 세계여행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병에 걸리면 그것이 병이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서틀 리전을 방문하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라.

질문 : 쉬운 요기 생의 특별함은 무엇이나?

대답 : 요기의 생은 끊임없는 행복의 삶이다. 쉬운 요기인 자들은 끊임없이 행복의 그네를 탄다. 행복의 공여자 아버지가 너희에게 속하면 그때는 행복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계속해서 행복의 그네를 타라. 너희는 행복의 공여자 아버지를 이미 찾았으므로 너희들의 삶은 행복의 삶이 되었고 너희는 행복의 세계를 발견했다. 이런 것이 요기의 생의 특별함이며 요기의 삶에는 슬픔은 이름이나 흔적도 없다.

질문 : 연로하고 교육받지 못한 자녀들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봉사해야겠느냐?

대답 :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다. 모든 이에게 너희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줘라. 유모나 할머니가 가족 내의 아이들 모두에게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줘라. 단지 너희가 뭘 발견했고 뭘 얻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너희들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봉사는 전체 모든 봉사 가운데 최고의 봉사다. 기억과 봉사, 두 가지로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라. 이것은 곧 아버지와 같은 과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Blessing: 쉬운 노력가가 되어 너희들의 브라민 생의 특별함을 너희들의 성질로 만들어라. 왕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나는 왕자 또는 공주다”라는 의식을 거듭거듭 의식 속에 불러들인다. 뭔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그들이 평범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의 태생의 특별함은 잊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브라민 생은 특별한 태생이다. 따라서 너희의 생은 고결하고, 너희의 종교, 즉 다르마가 고결하고, 너희의 행위, 카르마도 고귀하다. 위대함, 즉 이번 생의 특별함이 자연스럽게 너희들의 의식 안에 머물러 있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쉬운 노력가가 될 것이다. 특별한 생을 가진 영혼들은 결코 평범한 행위를 행할 수 없다.

Slogan: 더블 라이트 상태로 머물기 위해서는 장애의 정복자가 되어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